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지난 24일부터 광주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여자프로농구 챔피언 신한은행 에스버즈가 30일 광주고 체육관에서 광주고농구팀과 연습경기를 갖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女 프로챔프 농구 데이트 男 고교챔프

신한은행 광주서 여름 전훈

광주고와 실전같은 연습경기

여자프로팀과 남자고교팀이 농구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이색 대결이 30일 오후 광주고 체육관(홍익관)에서 펼쳐졌다. 전주원·정선민 등 국내 최고의 스타들이 포진한 여자프로농구 3년 연속 통합챔피언 신한은행 에스버드와 전국우수고교초청대회 우승팀 광주고의 누나-동생간 '정상급 대결'이었다. 결과는 82대72로 광주고의 승리.

이날 경기는 지난 24일부터 광주에서 전지훈련(이하 전훈)을 실시하고 있는 신한은행의 훈련일정에 따라 이뤄진 연습경기였다.

비록 연습경기였지만 실전과 다름없는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누나' 신한은행은 파워 넘치는 '동생'들에게 몸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고, 광주고 '동생'들도 노련미 넘치는 '누나'들에게 뒤질세라 스피드를 앞세워 몰아붙이기도 했다.

신한은행 임달식(47) 감독은 "파워와 스피드를 앞세운 광주고와의 경기를 통해 더욱 강한 체력과 지구력을 단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광주고 김기용 코치는 "어린 선수들에게 경기운영하는 노련미와 스크린 플레이 등 섬세한 농구를 배우게 됐다"며 만족스런 표정을 지었다.

신한은행의 맏언니 전주원 플레잉코치는 "이곳에서의 훈련이 힘들긴하지만 쾌적한 환경에 음식맛도 좋아 만족스럽다" 면서 "광주고 후배들과의 경기도 좋은 경험인 것 같다"며 경기 후 거친 숨을 내쉬며 소감을 밝혔다. 광주고 농구팀 주장 신재호도 "최고의 스타급 선배들과 직접 경기를 하게돼 기쁘고 재미있었다" 면서 "팀동료를 위한 조직적인 플레이를 보고 배웠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날의 '명승부'를 보기위해 광주여대·수피아여중·고·방림초 등 광주지역 농구 선수들도 체육관을 찾아와 진지한 자세로 경기를 관전했다.

신한은행은 3년 연속 여름 전훈캠프를 광주에 꾸려오고 있다. 신한은행의 광주행은 임 감독의 뜻에 따른 것이다.

임 감독은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조선대 농구팀 감독을 맡으며 팀을 대학 1부리그로 끌어올린 명장이며 올해 조선대에서 박사학위(생리학)도 받았다.

임 감독이 광주 전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은 바로 조선대 본관 앞에 있는 108 계단 오르기. 남자선수들도 가장 힘들어 하는 지옥코스로 선수들 한 명 열외 없이 뛰어야 한다.

임 감독은 "조선대는 체력훈련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등산·계단오르기·트랙 러닝·웨이트트레이닝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서 광주행 이유를 밝혔다.

선수와 코칭스태프 등 22명으로 꾸려진 신한은행 전훈팀은 내달 1일 오전까지 하루 6시간씩 조선대와 광주고를 오가며 고강도 훈련을 실시한다. 오전엔 조선대 뒷산 등반·108계단 오르기·트랙 러닝 그리고 웨이트트레이닝 등 체력훈련을, 오후엔 광주고 체육관으로 옮겨 전술훈련을 갖는다.

임 감독은 "이번 전훈으로 체력과 조직력을 더욱 강화시켜 리그 4연패에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광주연고 프로농구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임 감독은 "시와 시민들이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여가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팀이 창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내달 5일 일본전지훈련을 떠난다. 9일간 체류하면서 동경 후지쯔팀·시즈오카 샹송팀 등과 연습경기를 실전감각을 익히게 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포르투·애스턴빌라 4강 합류

클럽축구대항전 피스컵

포르투갈 프로축구 강호 FC 포르투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애스턴빌라가 국제클럽 축구대항전인 '2009 피스컵 안달루시아(이하 피스컵)' 대회에서 나란히 4강에 합류했다.

포르투는 30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세비야 피스후안구장에서 열린 베식타스(터키)와 피스컵 D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득점 없이 0-0으로 비겼다.

이로써 포르투는 지난 28일 올랭피크 리옹(프랑스)과 1차전에서 2-0으로 이긴 데 이어 1승1무(승점 4)를 기록, 조 1위를 차지했다. 베식타스는 2무(승점 2)가 돼 조 2위로 밀려났다.

포르투는 앞서 열린 C조 조별리그에서 1위를 차지한 애스턴빌라와 내달 1일 말라가에서 결승 진출을 다툰다.

지난 리옹과 1차전에서 두 골을 몰아넣었던 포르투 간판 공격수 헐크는 베식타스를 상대로 전반부터 위협적인 모습을 수차례 보였지만 득점을 뽑아내지는 못했다.

앞서 애스턴빌라는 말라가 라 로살레다경기장에서 열린 C조 2차전에서 아틀란테(멕시코)를 3-1로 완파하고 4강행 티켓을 따냈다.

전체 12개 팀이 참가해 3개 팀씩 4개조로 나눠 각 조 1위 팀이 4강에 진출하는 피스컵 대회는 31일 하루 쉬고 나서 내달 1일 준결승, 3일 결승이 치러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A조 1위 유벤투스(이탈리아)는 B조 1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세비야에서 열릴 준결승에서 대결하고 C조 1위 포르투는 말라가에서 D조 1위 애스턴빌라와 결승 길목에서 만난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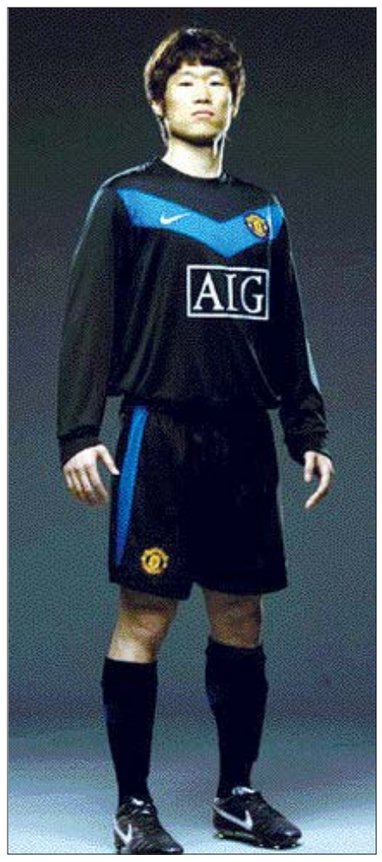
프리미어리거 이청용 내달 8일 데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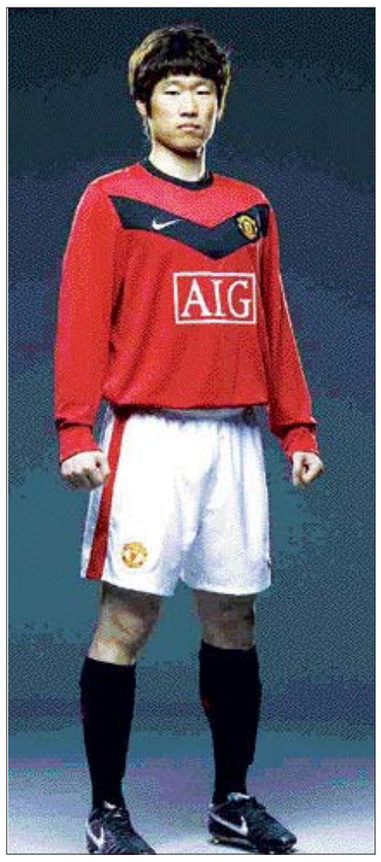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볼턴 원더러스와 3년 계약을 맺은 이청용(21)의 취업비자(워크퍼밋)가 발급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이 30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볼턴에서 성공적으로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이청용에 대한 워크퍼밋이 발급됨에 따라 조만간 팀에 합류해 입단식을 치른다"면서 "내달 8일 예정된 히베르니아 FC(스코틀랜드)와 친선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디언은 이어 "볼턴은 지난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청용의 경기 모습이 담긴 DVD 자료를 보고 영입을 결정했다"라며 "이청용은 2009-2010 시즌을 앞두고 폴 로빈슨과 션 데이비스, 샘 리케츠, 잿 나이트에 이어 다섯 번째로 볼턴이 영입한 선수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가디언은 특히 "맨체스터 시티도 이청용의 영입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청용이 주전 자리가 보장된 볼턴을 선택했다"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박지성, 맨유 새 원정 유니폼 모델로

'산소 탱크' 박지성(28)이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새 원정 유니폼 모델로 나섰다.

박지성은 맨유가 29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09-2010시즌 원정 유니폼을 입고 파트리스 에브라, 에드윈 판데르사르, 웨인 루니, 리오 퍼디낸드, 벤 포스터와 함께 모델로 등장했다. 검은색 유니폼에 가슴 부위에 파란색 'V' 무늬가 들어간 새 원정 유니폼에 대해 박지성은 "군인들이 입는 옷 같아 마음에 든다. 우리 팀도 경기장에서 군인들처럼 싸워 매 경기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맨유는 올해 홈 경기에서는 검은색 'V' 무늬가 들어간 붉은색 상의에 흰색 하의를 입는다. /연합뉴스

광주일고 봉황기 2회전 진출

'야구명문' 광주제일고가 제 39회 봉황대기 고교야구 선수권대회에서 '우승 후보' 대구 상원고를 누르고 2회전에 합류했다.

광주제일고는 30일 수원야구장에서 열린 봉황대기 1회전에서 상원고에 3-2로 승리했다.

광주제일고는 3회 초 1사 만루서 강백산의 좌익수 희생 플라이로 1점을 선취한 뒤 4회 초 1사 1, 3루 찬스에서 유격수 에러로 3루 주자가 홈을 밟으며 기세를 올렸다. 6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선 2학년 김요셉이 홈런을 터트리며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이날 광주제일고의 선발 투수로 나선 심동섭은 8.2이닝 동안 2실점(무자책)으로 호투했다.

서재응 광엑스포 홍보대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투수 서재응〈사진〉이 2009 광주세계광(光)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서재응은 31일 삼성과 광주구장 경기에 앞서 최종만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에게서 위촉장을 전달받고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서재응은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미약한 힘이나마 돕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세계광엑스포는 10월9일부터 28일 동안 광주 상무시민공원 등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추신수 5경기 연속 안타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5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내며 좋은 감각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30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스타디움에서 계속된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방문경기에 변함없이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선발 출전, 네 번 타석에 들어서 2타수 1안타에 볼넷, 몸에 맞는 볼을 기록하고 도루 1개를 성공했다.

타율은 0.292에서 0.293(362타수 106안타)으로 조금 올랐다. 1회초 2사 주자없이 맞이한 첫 타석에서 투구에 맞아 출루한 추신수는 에인절스 선발 투수 존 래키의 투구 폼을 빼앗아 2루를 훔쳤다. 시즌 15호 도루를 기록했다. /연합뉴스